교회의 촛대 옮김 여부 확인하기

(계2:1~7)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촛대 옮김 여부 확인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과연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촛대는 옮겨진 것인가 아닌가, 이미 옮겨졌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촛대가 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촛대에 불이 활활 잘 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 오늘 에베소교회로 전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서 그 확인 여부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촛대가 옮겨졌다' 이 얘기는 꽤 자주 하던 얘기였어요.

예를 들면 영락교회가 이전에는 장로교단 통합측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요.
그렇게 제일 큰 교회였다가 제가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만 해도, 더 큰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영락교회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녔으니까, 과거에 교회에 정말 많은 교인들이 오고가고 할 때 수요일 저녁예배 같은 때도 줄을 서지 않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제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는 그때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교인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을 그럴 때여서, 그런 상황을 대부분 알고 있는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중책을 맡고 있는 교인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촛대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로 옮겨진 것인가?'
그러다 소망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생겼지요, 강동의 명성교회입니다, 저희 통합교단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촛대가 또 명성교회로 옮겨진 것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의 촛대가 옮겨졌다고 하는 말의 기준은 교인이 물밀 듯이 쇄도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 기준을 두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기준에서 '촛대가 옮겨졌다 안 옮겨졌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마찬가지로 여전히 숫자적인 부흥이에요?
숫자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면 이곳에 촛대가 있는 교회고?
그러면 이단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상적으로 완전히 이단인 그런 종파들에서 교인이 막 수백 만 씩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촛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되면,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면 촛대가 굳건하게 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 비유적인 언어 안에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결국은 촛대에 붙일 불이 없기 때문에 촛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거죠.
결국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시지를 않는다는 얘깁니다.
하, 이거 무서운 얘기에요, 진짜 무서운 얘기에요.
그냥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공부 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교회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교회에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고 에베소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상태냐 아니면 촛대가 건재할 수 있는 상태냐를 구분해서, 아니면 시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핵심적인 태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냐 건재할 수 있는 교회냐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건 마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교황님과 관계되는 이야기들 중에서, 교황청에서 마피아와 손잡고 돈세탁 하는 부패가 만연하는 걸 보고 이 새로운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마피아를 파문해버렸습니다.
파문이라는 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더구나 가톨릭 세계에서는.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파문시켜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아버리시는 겁니다.
아, 이건 무서운 거죠.

오늘 이 에베소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 촛대를 옮기는 것이 교회의 파문이라면 결국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본질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교회 파문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에베소교회로서는 좀 많이 억울한 경고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잘못과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기신다는 이 마지막 말씀, 교회를 파문할 수도 있다는 마지막 말씀을 해버리신다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직접 언급하신바대로 에베소교회는 나름대로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잘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이단사상을 적절하게 대처해서 배격

한 것을 내가 안다.
이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사상과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는 일은 아무 교회나 합니까?
굉장히 곧고 바른 정통교리를 알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로만 교리를 인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리를 따라 행동하고 또 그대로 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박해와 맞서야 되었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했다는 얘기에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사랑이 부족하다면, 처음 이 에베소교회가 바울사도의 3차 전도여행 때 3년 가까운 세월을 머물며 말씀을 전함으로 생긴 교회 아닙니까?
그때 가졌던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면 되지, 어떻게 교회 파문에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 촛대를 옮긴다는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부부싸움은 어느 부부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혼하겠다는 마지막 말을 해버리면 정말로 이혼하게 됩니다.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자꾸 말을 그렇게 하면 이혼하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교회는 내용적으로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어요.
이 말씀은 에베소교회와 관련된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제일 사랑하신다는 얘기에요.
제일 사랑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 주님의 판단 속에 지나치심도 모자라심도 없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말씀이기에 교회를 파문시키는 것에 해당되는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 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이데올로기로 대체돼버린 상태입니다.
사랑이 이데올로기로 대체돼버리면 주님께서 교회를 파문시켜버린다는 얘깁니다.

대체 사랑이 뭡니까?
오늘 에베소교회에 메시지를 주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셨나 하면, 앞의 1장에서 계시되었던 인자의 모습 중에서, 인자의 여러 부분 부분의 모습을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본 것은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 촛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별의 비밀이 뭔가를 얘기했어요.

일곱별은 사자를 말하고 일곱 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별의 비밀이 뭡니까?
교회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파문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 첫사랑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의 영역으로부터 파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해주는 첫사랑이 뭐냐 하는 얘깁니다.
이 첫사랑의 내용이 일곱별의 비밀과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별의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는 별이 스물네 시간 일 년 365일 떠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있거나 인공의 다른 빛이 눈에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하늘에 별이 아무리 많이 떠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도 하늘에는 북두칠성도 북극성도 다 있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창조되기를 시간과 공간의 커튼에 의해서 하늘과 막히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밝음을 얻으려면, 밝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나는 내 인생을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밝음이에요, 빛이 있어야 아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쳐지는 건데,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커튼에 가려져서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세워두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게 바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커튼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수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으로 수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빛들이 수입됩니까?
시간과 공간의 세계 바깥, 그곳이 하늘인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스물네 시간 가서 붙어있어야,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몸이 빛 아래서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인생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붙어있는 이 상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마음이 거기 붙어있으니까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내 마음이 없고, 따라서 뜻도 힘도 없어

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아버지께 가 붙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이 지상에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항상 시간과 공간의 세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바라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의 요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뭐라고 했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머무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이 시간과 공간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기울여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핵심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방송 할 때처럼 라이브로 연결된 상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버렸습니다.
이게 끊어져버렸는데 어떻게 이단사상을 배격할 수 있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낼 수 있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게 끊어졌는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이 순간을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이 돼서 사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삶에 나가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촛불의 심지가 돼서 하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과 계획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끊어졌는데도, 도대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게 연결된 것 같은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이데올로기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뭐죠?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행동과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 하면, 그 핵심내용이 뭡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여, 힘을 합치자! 우리가 누려야 될 물질적인 풍요를 부르주아 계층이 다 탈취해서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쳐부수자!
이것이 바로 관념이에요.
이 핵심적인 관념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관념이 된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 성수주일, '주일날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빠지지 마라'
이게 이데올로기화 돼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치 연인 사이의 남녀가 만날 때, 내가 저 남자(여자)를 만나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몸과 몸이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그쪽에 가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마음이 가있는 게.
그런데 성수주일은 어떻게 관념화 되었는가 하면, 성수주일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평안하지 않다, 주일날 골프를 쳐야겠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면 골프공이 잘 안 맞는다, 그러니까 7시에 드리는 1부 예배라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가야 된다.
목사님들이 계속 성수주일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수주일을 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의 마음이 더 이상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서 가짜로 마귀가 만들어낸 빛들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이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 하나님께 가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수주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에요, 전도가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습니다.

자꾸 전도 하라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전도하면 상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잘 안돼요.
그런데도 개신교 전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천만 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600만 명, 500만 명 선까지도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가 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자의 죽지 못해 사는 사막 같이 피폐해버린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이때 주님은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가서 전도하라고.
이 여자가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행위들을 다 제쳐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를 비난하던 마을 사람들이 싫어서 혼자 따로 살던 여자가, 자기를 비난하는 이유인 자기의 부도덕함을 입으로 꺼내서 얘기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수가라는 마을 전체를 전도해버립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게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마음을 이 여자가 주님께 두고 있는 것처럼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누가 믿더라도 계속 마음을 그렇게 드리도록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곱별의 비밀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곱별의 비밀이 수행되면서 마음이 시간과 공간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가짜 불들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별이 보이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교회의 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사자들이 교인들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공의 불빛들, 돈을 많이 벌어야 잘산다, 학력이 좋아야 취직이 잘된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들, 이게 다 가짜 불들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잘사는 거죠, 잘산다는 게 적합하게 산다는 얘기죠.
어떻게 돈을 많이 번다고 잘 삽니까?
돈 많이 벌어서 망한 사람 많아요.
돈이 안 벌리는 게 망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돈이 잘 벌려서 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심령도 망하고 가정의 형제간의 우애도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바람에.
하루 세끼 먹고 내가 할 일 하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돈 돈 하지 말고.

이렇게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을 때, 그 불을 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꺼줌으로써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왜냐하면 하늘의 불은 이 지상이 어둡지 않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들의 불빛들이 반짝거리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걸 꺼줘야 돼요.

그걸 꺼주는 게 뭡니까?
십자가말씀이에요.
사도바울의 '오직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만 알겠다는 거였어요?
자기가 그것만 아니까 말씀도 결국 그것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문자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내용을 들춰보면 다 십자가 얘기에요.
왜 그랬습니까?
불을 끄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을 꺼서 마음이 시간과 공간의 커튼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곳에 가서 연결이 돼있어야 이 지상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의 표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참 빛은 언제나 하늘에만 있어서, 수입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의 커튼 안쪽에서 마귀가 만들어낸 불들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그걸 꺼줘야 되니까.
꺼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그래서 거짓 사도를 가려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모든 교리가 결국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연결은 끊어지고 관념만 남은 거예요, 지식만 남은 겁니다.
지식만 갖고 있어도 이단을 가려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과 거짓 사도들도 지식을 내뱉고 있으니까, 그 지식과 지식을 비교해보면 잘못된 지식이라고 해서 거짓 사도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대단한 게 소용없다는 겁니다, 첫사랑이 끊어져버리면.

교리도 알고 있고, 전도다 성수주일이다, 이런 관념에 의해서 행동은 계속 성수주일 하고 전도를 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고, 온갖 행위와 말을 다 하고 있지만 라이브 연결이 끊어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모든 생각과 행동이 관념으로부터만 나오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과 생각이 아니라 관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공산주의가 관념으로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혁명해 나갑니까? 그렇게 혁명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관념만으로도.
교회가 세상을 이 관념 하나만을 갖고도 혁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시공 바깥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돼있습니까?
그 연결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로 불을 끄고 있습니까?
그걸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일곱별의 비밀이 십자가를 통하여 날마다 적용됨으로써, 우리 교회의 촛대에 시공 바깥의 하늘의 불들이 붙어져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